

전남도의회 개원 후 해외연수 첫 제동

보건복지환경위 4박6일 태국 치앙마이 일정
민간인 위원장 등 심사위원 대폭 교체 후 첫 부결
“일부 일정 관광성 성격” 계획서 보완 제출 요구

전남도의회 의원 10명 해외연수
가 제동이 걸렸다.
전남도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보
건복지환경위원회가 제출한 국외
출장 안건을 부결했다.
심사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
환경위는 내년 1월2일부터 7일까
지 4박6일 일정으로 태국 치앙마이
방문 일정을 제시했다.
연수단은 소속 상임위원 6명과
의회사무처 3명 등 모두 9명이며,

외국인의 예산에서 지원받는 경비
는 모두 1400여 만원이다. 나머지
부족한 경비는 의원 개인당 98만원
의 자부담으로 책정했다.
보건복지환경위는 이번 연수 일
정으로 태국 치앙마이 왕실정원과
매켄 화훼공원, 도인타는 국립공
원 등을 방문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통해 완도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정책과 순천만 국가정원 활
성화 방안 모색 등을 국외 출장 목
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심사위는 관련 조례로
명시한 출국 45일 전 국외출장계획
서 제출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방
문 대상지 선정도 부적절 하다는
이유 등으로 안건을 부결했다.
또 연수 일정 중 일부는 공식일정
없이 현지문화 탐방으로 짜여있어
관광성 연수 성격이 짙은데다 반대
시 첨부해야 하는 사전학습결과보
고서 부재도 불가 사유로 지적됐다.
그러면서 대상지 선정을 다시
할 것과 계획서를 충실히 보완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의회 의원 국외 연수에 제
동이 걸린 것은 전남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그동안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도의회가 지난 8월 조례를
개정, 공무원의 출장 심사위원을
대폭 교체후 나온 첫 조치다.

도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당
연직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의회 운
영위원장을 대신해 나경광 변호사
를 첫 민간인 출신 심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운영식 변호사와 류도암 목
포대 교수를 새롭게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 9명 중 6명을 민
간인으로 교체해 의원들의 ‘셀프
심사’를 차단했다.
나경광 심사위원장은 “보건복지
환경위의 출장 계획서 자체가 부실
한데다 국외 출장의 목적과 대상지
또한 부적절 하다는 데 의견이 모
아졌다”며 “앞으로도 도민 눈높이
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펼쳐 의원들의 국외출장이 반드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토대를 마
련하겠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광주인권회의 등은 28일 오전 11시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콩시민 지지를 위해 홍콩 시위를 주관한 민간인권전선을 광주5·18인권상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히고 있다.

광주시민사회, 광주인권상에 홍콩시민 추천

“또 하나의 연대 될 것...민주화 위한 연대 지속”

광주시민사회단체가 민주화
를 위해 투쟁하는 홍콩시민 지
지와 연대를 위해 광주인권상
후보에 홍콩의 ‘민간인권전선’
을 추천했다.
광주인권회의, 광주시민
단체협의회, 정의당 광주시당
등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앞에서 성명
을 발표하고 광주인권상 후보
추천서와 시민 서명 등을 재판
측에 전달했다.
광주인권회의 등은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홍콩시민을 지지
하기 위해 송환법 반대 시위부
터 주요 대형 시위를 주관하고

시민들 간 정보전달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시민사회
연대체 ‘민간인권전선’을 정식
추천한다”고 밝혔다.
황법량 광주인권회의 간사는
“광주인권상 추천이 또 하나의
연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
다”며 “많은 사람들이 홍콩시위
를 통해 5·18을 생각한다. 민주
화를 위해 투쟁한 그들을 외면하
지 않고 연대하는 것이 광주시민
의 역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광주인권회의 등은 5·
18기념센터 앞에서 성명서를 낭
독한 후 2층 국제연대부로 이동,
추천서를 전달했다.

광주시, 동구·북구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지정 재요청

“재개발·재건축으로 분양가 들쭉”

광주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동구와 북구를 고분
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지정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
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주택도
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심
사할 때 분양가를 인근 지역에 1
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
면 같은 수준으로, 1년 초과는
105%를 넘지 못하도록 보증을
거절할 수 있어 해당지역 분양
가의 조정 효과가 있다.
시는 지난 7월 광주 전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 요
청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구, 남구, 광산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동구, 북
구 지역은 제외하 바 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이후

서구, 남구, 광산구 지역의 분양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
이 활발한 동구, 북구는 분양가
규제 장치 부재로 조합원분양가
대비 일반분양가가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일반분양자에게 부담
을 주는 동시에 고분양가를 부
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와 북구에는 광주지역 재
개발 구역 전체 33곳 중 24곳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추가 지정되면 광주 전
지역의 분양가가 안정되고, 재개
발·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 분양가 등으로 조합원을 현
혹하는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28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토지 지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특례사업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폐지하라”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토지
지주들이 특례사업 폐지 등을 촉
구했다.
광주 수랑·중앙·송암공원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 반대 대책위원
회는 28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
자회견을 열고 “특례사업을 즉각 폐
지하고, 토지를 지주에게 환원하
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시는 직권남용과 업무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발

혀져 간부 공무원이 구속됐지만 사
업을 계속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청 보조금을 받고 특
정 건설업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시민·사회단체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청렴·공정·투명성을 주
장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환경·시민·사회단
체와 토지 지주들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 해상중합훈련 2년 연속 종합 1위

여수해양경찰서는 서해지방해
안경찰청이 주관하는 해상중합훈
련에서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종
합 1위 해양경찰서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해상중합훈련은 매년 상·하반
기 2차례에 걸쳐 실제 임무 수행에
가장 필요한 기본훈련과 실무교육
중심의 훈련으로 실시된다.
여수해경서는 지난해 서해지방
청 주관 해상중합훈련 종합 1위 해
경서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도 종합

1위 경찰서로 뽑혔다. 또 올해 131
점과 P-55점이 소형경비함 부분 최
우수합정으로 선정되는 등 7개 분
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철우 여수해경서장은 “함정
승조원의 팀워크와 부단한 교육·
훈련, 장비 성능 유지를 위한 보수
관리에 힘을 합쳐 이 같은 성과를
이뤘다”며 “안벽한 해상치안테
세 확립과 안전한 해상관광 바다
를 만드는 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도현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